엔터테인먼트

Entertainment

"원래 꿈은 가수였는데 이젠 연기 욕심 생겼다"

'내조의 여왕' 태봉이로 스타덤 오른 윤상현

지난 5월19일 종영한 MBC TV '내조의 여왕'으로 스타덤에 오른 '핫피플' 윤상현(36)을 만났다. 드라마는 끝났지만 그에게서는 여전히 태봉이의 느낌이 묻어났다.

실제로 그는 인터뷰 도중 간간이 '~에?'라는 다소 퉁명스러운 듯한, 그러나 다분히 장난스러운 추임새로 태봉이와 오버랩됐다.

"요즘 집 밖으로 못 나가고 있다. 지난 토요일에는 등산을 갔는데 하마터면 큰일 날뻔 했다.(웃음) 그래도 마스크와 안경을 썼으니 사람들이 못 알아보리라 생각했는데, 지나가는데 아주머니들이 '태봉이 아니야?'라며 수군수군 대더라. 산을 빨리 타는 편이라 아주머니들을 피해 뒤도 안 돌아보고 막 올라갔는데 정상에 서니까 또 한무리의 아주머니들이 '태봉이다!'라며 내 쪽으로 오려고 하더라. 내려올 때는 거의 뛰어서 내려왔다. 이제는 등산도 못 가게 생겼다."

그는 오랜 무명 끝에 데뷔 5년 만에 대박이 났다. 기분은 어떨까.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게 있다고 솔직히 예전이 더 좋았다는 생각도 든다. 드라마에 출연해도 알아보는 사람 별로 없고 마음대로 돌아다니던 때가 좋았다. '불꽃놀이'라는 드라마에 출연해도 사람들이 '촛불놀이'라는 엉뚱한 제목으로 기억하고 시청자들이 내 이름도 제대로 모르던 시절이 마음은 편했다."

태봉이는 '30대 구준표'로 불리며 폭발적인 사랑을 받았다. 그는 드라마 종영 후 광고도 여러개 찍고, 각종 예능프로에 불려나가는 등 최고의 인기를 구가중이다.

"진짜로 내가 뜰 것이라고는 생각도 안했다. 지난해 MBC TV '겨울새'를 만나기 전까지는 소속사와 계약만 끝나면 다시 장사나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연기는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너무 불편했고, 촬영장에 가는 것이 곤욕스러웠다. 그 당시 괴로움에 술, 담배를 많이 했다. 그런 상황에서 허구한 날 '실장' 역이 들어왔는데 그냥 멋지게 보이면 됐다. 근사한 차를 멋지게 운전하면 됐고 대사도 별것이 없었다.

그에게 드라마 '겨울새'는 또 다른 세계를 보여준 작품이었다.

"'겨울새'의 주경우는 대본을 보면 딱 마마보이인데 감독님이 '신성일처럼 멋지게 연기하라'고 주문하셨다.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웃음) 그래서 처음으로 역할에 대해 고민을 했는데 드라마 자체가 워낙 우중충하고 어두우니 내 캐릭터만이라도 재미있게 가야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감독님을 설득했는데 다행히 허락해주셨다. '아싸!' 싶었다. 3개월간 연구한 결과를 캐릭터에 다 쏟아냈는데 그때부터 연기의 맛을 깨닫기 시작했다. 극중 어머니였던 박원숙 선생님이 요즘 태봉이 인기를 보며 축하해주신다.(웃음)"

'태봉이'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감독님이 처음에는 "박신양, 현빈이 했던 CEO처럼 해봐라"고 주문하셨다. 그런데 도저히 못하겠는거다. '에라 모르겠다' 싶어 그냥 실제의 나랑 비슷하게 연기했는데 감독님이 제재를 안하셨다. 태봉이는 연기하는 게 정말 재미있었다. 김남주 누님과 호흡도 좋았다."

드라마에서 뛰어난 노래 실력을 자랑한 그는 고등학교 때부터 가수가 되고 싶었다. 하지만 오디션마다 떨어졌다.

"노래방에서 부르면 진짜 잘하는데 이상하게 오디션에만 가면 잘 못했다. 노래를 부를 데가 없어 방에 틀어박혀 불렀는데, '미친놈' 소리도 진짜 많이 들었다. 20대후반쯤 되니 어머니가 '이제 그만 좀 하라'고 하시더라.(웃음) 연기는 생각도 못했다. 그런데 가수 시켜준다고 들어간 기획사에서 허구한 날 드라마에만 출연하라고 하니 답답했다."

윤상현은 "지금은 연기를 더 파고 들고 싶고, 연기에 욕심이 생겼다"며 "가을께 코믹 드라마로 시청자를 만날 것 같다"고 향후 일정을 전했다. /연합뉴스

그룹 '빅뱅' 대성·승리 뮤지컬 '샤우팅' 주인공

인기그룹 빅뱅의 대성(본명 강대성·20)과 승리(본명 이승현·19)가 오는 8월 서초동 한전아트센터에서 공연되는 뮤지컬 '샤우팅'의 주인공을 맡아 무대에 오른다.

이 뮤지컬은 스타가 되려는 두 주인공의 꿈과 희망, 노력, 좌절과 성공을 다룬 내용으로, 수많은 청소년이 연예인이 되고자 하는 시대상을 담고있다.

설앤컴퍼니의 설도윤 대표가 방송국, 기획사, 가수 등의 생활과 이들의 관계를 조명해 10여년전 만든 뮤지컬을 현실에 맞게 각색했으며, 빅뱅의 자전 에세이 '세상에 너를 소리쳐'에서 힌트를 얻어 제목을 '샤우팅'으로 붙였다.

'결혼 못하는 남자' 골드미스역 엄정화

"친구같은 남편 빨리 만나고 싶다"

"'골드미스'라는 말 사실은 별로 안 듣고 싶어요. 저도 결혼해야죠.(웃음)"

실제로 '골드 미스'인 엄정화(40)가 또 다시 드라마에서 골드 미스 역을 맡았다.

그는 '남자 이야기' 후속으로 15일 첫선을 보이는 KBS 2TV '결혼 못하는 남자'(극본 여지나, 연출 김정규)에서 여주인공 문정 역을 맡았다. 문정은 예쁘고 성격 좋은 내과 전문의이지만 시집을 못간 노처녀다.

엄정화는 "나이가 들수록 어렸을 때 느꼈던 불안감이나 모자람에 있어서는 탈피한 느낌이 든다. 하지만 나이가 주는 압박감은 있다"며 웃었다.

일본 드라마를 원작으로 한 '결혼 못하는 남자'는 30대 후반 싱글 남녀의 이야기. 사회적, 경제적으로는 성공했지만 싱글 라이프에 익숙한 이 시대 도시 남녀의 삶이 그려진다.

"도대체 내가 왜 이 드라마에 공감을 느끼고 있나 싶을 정도로 안타까우면서도 재미있다"며 웃은 그는 "정말 정은의 삶과 생각에 공감이 간다. 나 역시 혼자 사는 삶에 익숙해져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저뿐만 아니라 주위에도 일을 열심히 하다보니 결혼 시기를 놓친 친구들이 많아요. 혼자 자신을 챙기다보니 뭘 하나를 사도 모양이나 색깔보다는 성분이나 건강에 도움이 되느냐를 따지게돼요. 사실 싱글로 나이가 드니까 즐거움보다는 쓸쓸함이 더 많아요."

엄정화는 "지금 내 생활에 익숙해져서 지금 내 삶에 누가 들어오면 어떨까 걱정도 된다. 하지만 아이를 생각하면 친구 같은 남편을 빨리 만나고 싶다"며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기보다는 저절로 결혼까지 이르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드라마의 출연으로 엄정화는 동생 엄태웅과 같은 시간에 경쟁을 펼치게됐다. 엄태웅이 '결혼 못하는 남자'의 경쟁작인 MBC TV '선덕여왕'에서 김유신으로 출연하기 때문.

엄정화는 "안 그래도 엄마가 어느 드라마를 봐야 하냐고 고민하고 계신다"며 "그런데 내가 누나고 아직 시집도 못갔으니 내가 좀 더 잘되야하지 않겠나"라며 웃었다. /연합뉴스